

「冥說因果曲」研究

金 周 坤

〈차 례〉

I. 緒 論	1. 地獄道頌
II. 地獄의 概觀	2. 餓鬼道頌
1. 地獄의 語義	3. 畜生道頌
2. 地獄의 位置	4. 人道頌
3. 地獄의 構造	5. 天道頌
4. 地獄의 種類	IV. 結 論
III. 作品에 나타난 五道頌의 樣相	

I. 緒 論

우리 古典文學에는 佛教思想이나 그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이 수 없이 많다. 印度에서 발생한 불교가 中國을 거쳐 우리 나라에 전래된 이래 佛教는 韓國 古詩歌文學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宗教思想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민중의 사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新羅의 鄉歌에서 朝鮮의 歌辭文學에 이르기까지 문학작품에 나타난 불교적 요소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佛教歌辭는 高麗末 懶翁和尚의 〈西往歌〉로부터 출발하여 朝鮮朝를 거쳐 최근세까지 연면히 계승되어 왔는데, 주로 승려들에 의해 지어져 불교 신도들에게 佛德을 예찬하고 佛法修行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불교가사는 불교의 교리 전달이나 포교의 수단에 머무르

긴 하였으나, 天主歌辭·東學歌辭 등의 다른 布教歌辭보다도 대중 教化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했다고 보며, 文學史的으로는 歌辭文學의 원동력이 되었고, 士大夫歌辭·平民歌辭·閨房歌辭와 더불어 가사문학의 한 갈래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런 연유로 佛教歌辭의 연구는 歌辭文學의 총체적 모습의 파악과 韓國 古詩歌 정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既存研究를 보면, 韓國佛教歌辭의 發展過程을 밝힌 研究,¹⁾ 古小說·鄉歌·歌辭 작품에 나타난 佛教思想을 추출한 연구,²⁾ 新羅·高麗·朝鮮의 佛教歌謠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³⁾ 佛教歌辭에 나타난 思想研究,⁴⁾ 佛教歌辭의 作家와 作品研究⁵⁾ 등이 있고, 韓國佛教歌辭의 形成背景·作家·作品·思想·形式的 特性 등을綜

- 1) 李相寶, 〈佛教歌辭의 研究〉(上), 東國大 國語國文學 論文集 7·8輯, 1969.
 ———, 〈佛教歌辭의 研究〉(下), 明知大論文集 第3輯, 1970.
 ———, 〈韓國佛教歌辭의 歷史的 考察〉, 明知大論文集 第4輯, 明知大, 1971.
- 2) 金起東, 〈國文學의 佛教思想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76.
- 3) 金聖培, 〈韓國佛教歌謠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76.
- 4) 姜學榮, 〈韓國佛教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研究〉, 明知大 碩士論文, 1981.
 高光榮, 〈佛教歌辭에 나타난 諸思想研究〉, 國民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84.
 拙稿, 〈懶翁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 研究〉, 《慶山大論文集》第8輯, 1990.
 ———, 〈佛教歌辭에 나타난 無常思想 研究〉, 《大邱語文論叢》第9輯, 1991.
 ———, 〈佛教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考察〉, 《大邱語文論叢》第10輯, 1992.
 ———, 〈佛教歌辭에 나타난 因果思想研究〉, 香山 卞廷煥博士 華甲記念 《韓國學論叢》, 1992.
 ———, 〈佛教歌辭에 나타난 勸佛思想研究〉, 《嶺南語文學》第21輯, 1992.
- 5) 具壽榮, 〈懶翁和尚과 西往歌 研究〉, 《國語國文學》第62·63合併號, 1973.
 金鐘雨, 〈懶翁과 그의 歌辭에 대한 研究〉, 《釜山大論文集》, 第17輯, 1974.
 金基卓, 〈懶翁和尚의 作品과 歌辭發生 淵源考察〉, 《嶺南語文學》第3輯, 嶺南語文學會, 1976.
 崔康賢, 〈鏡虛禪師와 그의 歌辭에 대한 考察〉, 首都工大 論文集 第3輯, 1971.
 拙稿, 〈回心曲 研究〉, 大邱韓醫科大學 論文集 第4輯, 1986.

합의으로 研究⁶⁾한 論文도 있다.

本稿는 正祖 18년(1794) 겨울에 智瑩이 노래한 眞說因果曲⁷⁾을 연구코자 하는 것이 目的이다. 이 작품은 序曲으로부터 시작하여 地獄道頌・傍生道頌・餓鬼道頌・人道頌・天道頌 그리고 別唱勸樂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1,106句로 된 作品으로서 六道중 修羅道에 관한 언급만은 없다. 그리고 그 주제의 차이로 보아 別唱勸樂曲은 달리 구별해야 할 것을 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의의 밖으로 한다. 그리하여 먼저 地獄에 대한 概觀을 해 보고 五道の 地獄頌・餓鬼頌・畜生(傍生)道頌・人道頌・天道頌 順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II. 地獄의 概觀

1. 地獄의 語義

지옥의 語源은 梵語로 “Naraka”인데 <Internal region, hell>⁸⁾ <of a demon slain by krishna>라는 설명과 같이 善의 表現인 Krishna에 의한 惡의 處型, 地下의 牢獄을 의미한다. 泥羅夜・那犁耶・泥梨耶라고 音譯⁹⁾했다. 泥梨耶라는 명칭에 대하여서는 佛說立世阿毘曇論 卷 第六 云何品에서 설명¹⁰⁾하고 있다. ‘泥梨耶’라고 하면 거기에는 戲樂이 없기 때문이고, 脫出할 수 없기 때문이고, 離業을 지을 수 없어 언제나 그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6) 拙稿, 〈韓國佛教歌辭研究〉, 大邱大 博士學位論文, 1991.

7) 李相寶, 〈韓國佛教歌辭全集〉, 集文堂, 1980, p. 65.

8) Arthur MacDonell, 「A. Practical Sanskrit Dictionary」 London:Oxford univ, 1970.

9) 望月信亭, 「望月佛教辭典」, 東京:世界聖典刊行會, 1978, p. 3574.

10) 云何地獄名泥梨耶 無戲樂故 無憍樂故 無行出故 無福德故 因不除離業 故於中生 復說此道於欲界中最爲不劣 名曰非道 因是事故 故說地獄名泥梨耶

極樂이 善業을 지은 사람의 靈魂이 죽은 후에 가는 즐거움만이 있는 곳의 의미라면, 地獄은 惡業을 지은 사람의 영혼이 죽은 후에 간다는 나라로서 땅 속에 있다고 想像되는 곳이다.

古人은 善人·惡人의 구별이 없이 땅 속 깊은 암흑의 세계에서 기쁨이나 즐거움도 없이 空虛한 생활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점차 현실에서의 행위의 결과를 死後의 世界에다 구하여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倫理的 가치를 부여하여 여기에 지옥과 극락의 觀念이 생겼다.

지옥은 헤브라이어로는 세울(Seol)인데 원래 ‘무덤’이라는 뜻이었으나 그 후 宗教의 용어로 되면서 지옥의 뜻으로 바뀌게 되었다.

2. 地獄의 位置

地下의 牢獄을 〈地獄〉이라 하여 지옥은 지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니와, 그 위치를 經典에서 찾아 보면 大海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大重剛山과 제2의 대중강산의 중간에 있다고 하고,¹¹⁾ 또 그 兩界의 중간에 있어서 가장 협소한 곳은 八萬由間으로서 밑에는 바닥이 없고 위에는 뚜껑이 없는데, 그 가장 넓은 곳을 十六萬由間이라고 한 것은¹²⁾ 지옥이 鐵圍山 밖에 있다는 것이다.

지옥의 위치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水平的인 위치이고 다른 하나는 垂直的인 위치이다. 먼저 수평적인 위치에 대한 것은 《長阿含經》 第十九卷, 世紀經, 地獄品에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四천하에는 다시 八천의 천하가 있어 그 밖을 둘러싸고 다시 큰 바닷물이 있어 八천의 천하를 둘러쌌다. 다시 큰 금강산이 있어 큰 바닷물을 둘러 있다. 금강산 밖에는 다시 제2의 큰 금강산이 있고 두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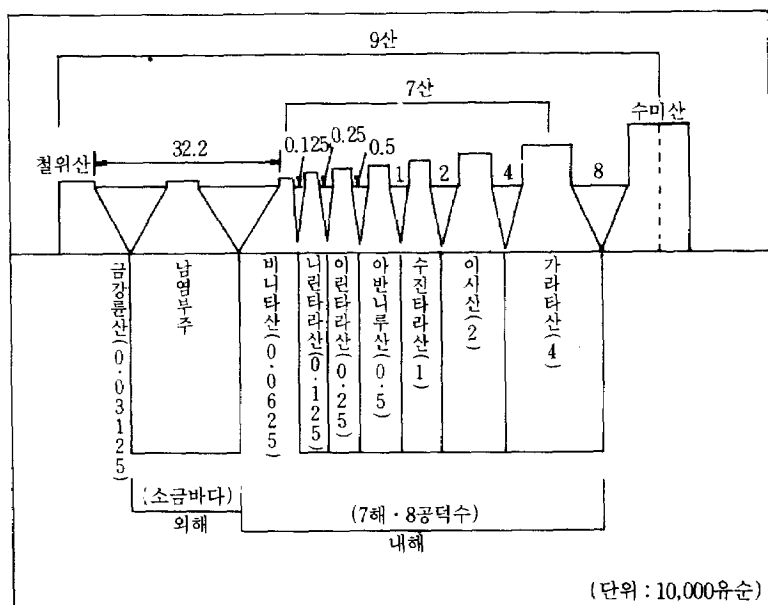
11) 《長阿含經》 第19.

12) 《女世阿毘曇論》 第11.

의 중간은 어둡고 아득하다. 日月과 神天은 큰 위력이 있지만은 광명으로 저기에 비추어 미칠 수가 없다. 거기에는 八大地獄이 있다.¹³⁾

금강산은 높이가 680만이고 너비와 세로의 크기 또한 680만 由旬인

〈그림 1〉 9산 8해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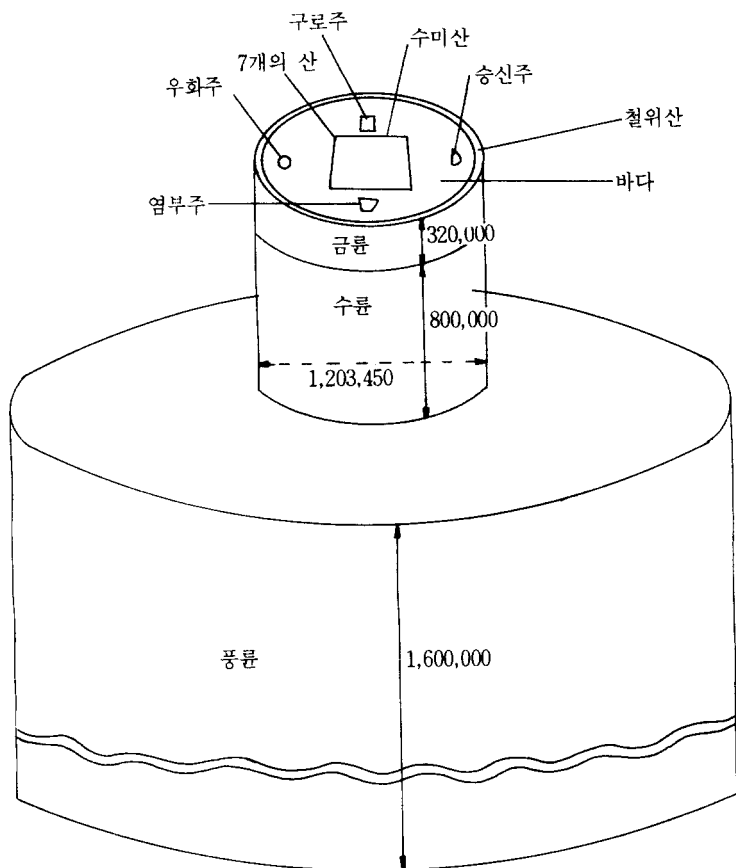


[지옥의 수평적인 모습] 불교의 우주관은 고대 우주관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였다. 고대 인도인들은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이라는 큰 산이 솟아 있고 큰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데 동·서·남·북 네 곳에 동승신주·서우화주·남염부주·북구로주의 네 대륙이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도 남염부주가 가장 뛰어난 곳으로 그 생김새도 지금의 인도 대륙처럼 사다리꼴을 얻어 놓은 모습과 닮았다. 이 남염부주의 땅 밑에 지옥이 있다고 한다.

13) 此四天下有剎千天圍 其外 復有大海水周匝圍遶八千天下 後有大金剛山遶 大海水 金剛山外復有第二大金剛山 二山中間窈窕冥冥 日月神天有大威力 不能以光照及於彼 彼有八大地獄

데, 金剛으로 이루어져 깨뜨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어떤 이는 수평으로 자리한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한 煩惱는 마치 깨뜨리기 어려운 금강석과 같고, 그 煩惱가 일으키는 罪業은 끝이 없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2〉 수미산 세계 조감도



다음은 수직 방향에서 지옥의 위치를 살펴보자. 한역된 《중아함경》 제12권 〈천상경〉에 “한량없이 깊은 땅 밑……다리를 위쪽으로 머리는 아래쪽으로 한 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계송의 내용이 아마도 수직 방향에서 지옥의 위치를 말한 최초의 것이라고 한다. 지옥이 땅 밑에 있다는 생각은 그 뒤로 더욱 발전하여, 八大 지옥도 지표로부터 차례차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리를 잡게 된다. 염부주보다 훨씬 규모가 큰 지옥들이 어떻게 부주의 땅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염부주는 위가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게 퍼져 나가 마치 圓錐를 거꾸로 세워 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거대한 지옥도 다 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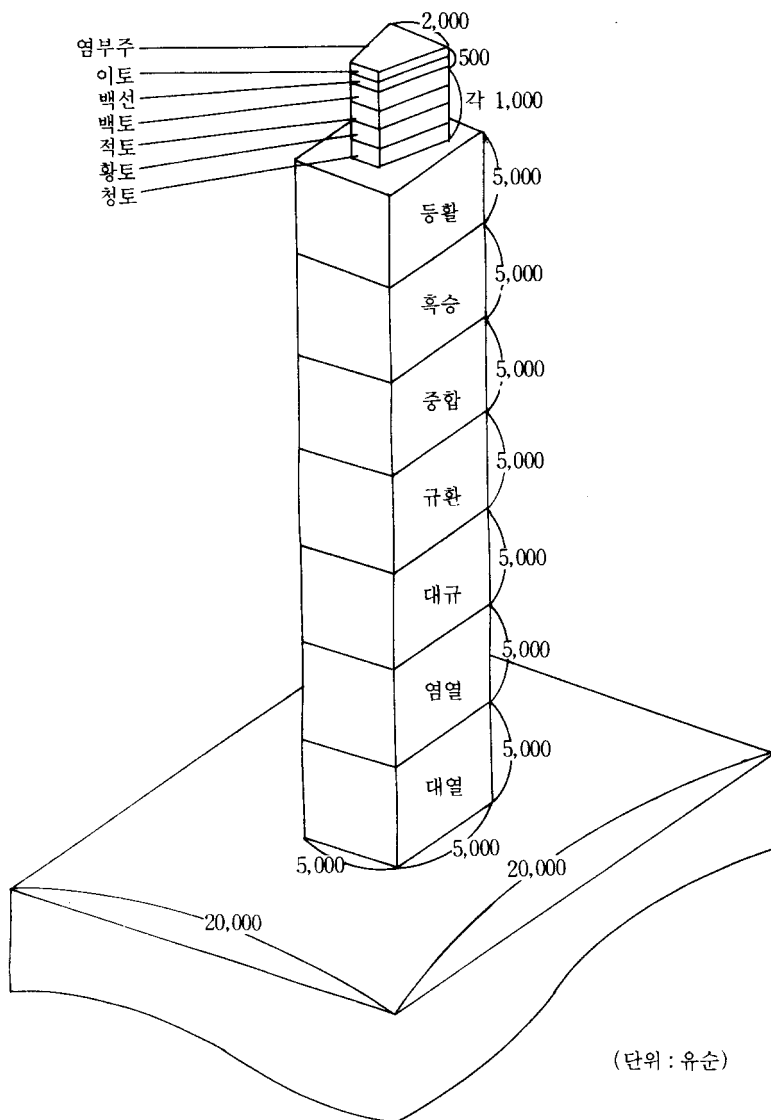
3. 地獄의 構造

팔대 지옥은 閻浮洲의 땅 밑에 차례로 포개진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곧 삼각형의 모습을 한 閻浮洲의 땅 표면과 똑같은 넓이를 지닌 지하층이 있는데 그 두께는 5천 유순이다. 모두 다섯 층으로 위쪽부터 진흙·흰흙(白塼)·白土·赤土·黃土·靑土가 같은 두께로 마치 서루떡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 그 아래에 같은 크기의 입방체 모습의 칠대 지옥이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맨 위쪽이 等活地獄부터 시작하여 黑繩·衆合·叫喚·大叫·炎熱·大熱 地獄의 차례로 아래를 향해 있다. 각 지옥의 한 변 길이는 5천 유순이며, 칠대 지옥의 깊이는 모두 합해서 3만 5천 유순이 되고, 지표로부터는 4만 유순이 되는 셈이다.

맨 밑에 있는 무간 지옥은 크기가 매우 커서 한 변의 길이가 2만 유순이 되는 입방체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러나 경전에 따라서는 지표에서 칠대 지옥이 끝나는 곳까지의 길이

〈그림 3〉 지옥의 구조(「대비바사론」에 의함)



가 2만 유순이며, 그 아래에 한 변의 길이가 2만 유순이 되는 정육면체 크기의 무간 지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閻浮洲의 지표로부터 2만 유순 길이 사이에 칠대 지옥이 들어가는데, 밑에서부터 1만 9천 유순은 칠대 지옥이 차지하고, 나머지 1천 유순 가운데 5백 유순은 백토층이고 위쪽 5백 유순은 진흙층이라고 한다. 칠대 지옥의 넓이는 각각 한 변이 1만 유순이 되는 정사각형이지만 그 두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것은 아마도 1만 9천 유순의 길이가 일곱으로 고르게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¹⁴⁾

4. 地獄의 種類

지옥의 종류는 經典마다 차이가 있으나, 불교의 지옥을 대표하는 것은 아무래도 八大地獄을 꼽아야 하겠다.

佛敎에서는 지옥을 熱地獄과 寒地獄으로 大別하고 있으나 孤獨地獄도 있다. 八熱地獄은 八大地獄도 여덟이라는 그 숫자는 일치하지만 경전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俱舍論》·《大毘婆沙論》에 따라 地獄名을 차례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等活·黑繩·衆合·號叫·大叫·炎熱·大熱·無間

이 八熱地獄에는 어느 곳이나 네 벽에 하나씩 문이 있고 그 문마다 4종의 小地獄이 딸린다. 따라서 소지옥은 각 지옥마다 16개이며, 모두 128개의 소지옥이 있다. 4종의 小地獄名은 當의·屍糞·鋒刃·烈河 등이다. 그러나 경전에 따라서 八大地獄에는 각 지옥마다 다시 16개의 소지옥이 에워싸고 있다고 한다.

또 《大智度論》의 八大地獄名을 보면 다음과 같다.

14) 《이기선》, 지옥도, 대원사, 1992, pp. 38~41.

等活・黑繩・合會・叫喚・大叫喚・焦熱・大焦熱・阿鼻

그리고 《長阿含經》¹⁵⁾의 八大地獄名은 다음과 같다.

想・黑繩・堆壓・叫喚・大叫喚・燒炙・大燒炙・無間

다음 寒地獄에 대하여는 諸經論의 說이 不同하다. 경전에서는 厚雲・無雲・呵呵・奈何・羊鳴・須乞提・優鉢羅・拘物頭・分陀利・鉢頭摩 등의 十寒地獄이 있다고 했다. 그 十寒地獄의 名義를 설명하기를, 이 獄의 죄인들이 厚雲과 같이 자연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厚雲이라 하고, 옥중에서 벌을 받는 죄인들이 자연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치 肉과 같기 때문에 無雲이라 하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呵呵하기 때문에 呵呵라 하고, 고통이 매우 심하여 어찌 할 수 없어 奈阿라고 하기 때문에 奈阿라 하고, 고통이 몸을 쭈서 소리를 낼려고 해도 혀가 돌아가지 않기가 羊鳴과 같기 때문에 羊鳴이라 하고, 옥중이 검기가 須乾提花와 같기 때문에 須乾提라 하고, 옥중이 푸르기가 優鉢羅花와 같기 때문에 優鉢羅라 하고 옥중이 붉기가 拘物頭花와 같기 때문에 拘物頭라 하고, 옥중이 희기가 鉢頭摩花와 같기 때문에 鉢頭摩라고 한다는 것이 다.¹⁶⁾

한편 《大智度論》에 나오는 八寒地獄은 頰部陀・尼刺部陀・頰嘶陀・臙臙婆・虎虎婆・嚙鉢羅・鉢特摩・摩訶鉢特摩 등이 있다.

이와 같이 佛教의 地獄은 熱地獄을 根本으로 하고, 寒地獄은 熱地獄에 소속되어 있는 小地獄이라고 하겠다.

15) 《長阿含經》, 第十九卷, 제4분(世記經) 地獄品 제4.

16) 앞의 책.

Ⅲ. 作品에 나타난 五道頌의 樣相

「眞說因果曲」은 佛敎에서 말하는 六道, 즉 地獄・餓鬼・畜生・修羅・人間・天 중에서 修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5道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실제 작품에서는 이러한 五道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1. 地獄道頌

(1) 等活地獄

地獄道頌 드러보소 殺生하기 도하하면
等活獄의 썩러져서 五百世를 고통타가
겨오구려 세상나니 百千苦楚 얼먹이고

등활지옥은 八大地獄의 하나로 첫 번째 지옥으로 活地獄・想地獄이라고도 하는데, 殺生罪를 범하면 제일 먼저 가는 지옥이다. 《大正新修大藏》에는 業과 苦痛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若有殺生 樂行多作此業普遍 殺業究竟 和合相應 隨活地獄
殺生之業 有上中下 地獄受苦 亦上中下¹⁷⁾

가장 먼저 殺生을言及하였는데, 이 殺生의 種類에 따라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다를 것을 말하고 있다. 위에 속하는 殺生은 善人受刑人 善行人에게 殺生을 칭찬하여 살생을 권하면 등활지옥에 간다고 하였다. 생명

17) 大正新修大藏經 17, p. 27, 中.

있는 것을 죽였으면 모두 살생죄에 포함되지만 같은 살인이라도 극악무도한 자나 청부살인자, 인간 이하의 금수 같은 자, 많은 사람을 학살한 자, 특히 착한 행을 하는 善人이나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受戒人이나 현재 사회에 덕망이 있고 남의 모범이 되는 善行人을 살상한 자와는 구별이 있다. 과실치사자는 살생죄를 받기는 하되 경중이 다르다. 만일 살생죄를 범했다면 三惡道로 태어나게 되고, 그 과보가 끝나 人道還生되어도 전생의 習氣¹⁸⁾가 남아 단명하거나 다병 허약의 과보를 받아 평생동안 병고에 시달린다.

等活地獄에는 16小地獄이 있는데 그중 첫째 屎泥地獄에 사는 衆生の業은 새를 쏘아 죽이거나 사슴을 포위해서 사냥하여 죽이고 참회하지 않는 殺生の業이라 하여서 불에 탄 똥이 있는 곳에 난다¹⁹⁾고 하여 前生の業으로 새·사슴이 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수명이 짧음을 說하고 있다.

이 지옥의 위치는 남염부주(閻浮提) 아래 일천 유순 되는 곳에 있는 지옥이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은 서로 핏줄고 찢으며 옥졸들도 쇠몽둥이를 가지고 죄인을 때려 부수고 예리한 칼로 포를 뜨고 살을 점점이 저미며 죄인이 죽으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살아나게 되며, 혹은 옥졸이 쇠갈퀴(철차)로 땅을 두들기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하면 바로 살아나서 시달리는 그 고통을 다시 받기를 몇 겹을 되풀이해야 한다.

본 작품에서는 살생하기를 좋아하면 等活獄에 떨어져서 五百世를 고생하다가 겨우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백천가지 고초에 얽매인다고 하였다.

18) 업의 잠재 여력.

19) 大正, p. 27, 中~下.

(2) 黑繩地獄

부모동심 善知識에 교만하고 식험하면
 黑繩獄의 씨러져서 불나올의 굶디지며
 百千툼을 커옵는듯 熱炎獄의 苦生이오
 그른법을 일을삼아 여러因을 어즈레면
 極烈獄의 몸살미물 굶툼업시 고통하고

흑승지옥은 팔대지옥 중 두 번째의 지옥이다. 이 지옥은 살생죄 외 偷盜 즉 도둑질한 죄가 더 가산된 사람이 가는 지옥이다. 이 지옥에 떨어지면 지독하게 불살리면서 끝없이 괴로움을 받는다. 불뚱이 튀기는 시뻘건 쇠사슬로 꿰뚫 묶여 불로 달군 도끼·툼칼 등으로 갈갈이 찢히며 一日一夜동안에 萬生萬死한다. 그 원인은 전생에 黑業(惡業)을 지은 죄로 몸뚱이와 수족이 꿰뚫 결박당하여 무수한 고초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앞의 殺生罪 외에 투도 즉 도둑질 죄가 더 추가된 것이다.

물론 투도죄에도 경중의 차는 있다. 정범이나, 종범이나, 또 훔친 재물이 淨財나 濁財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재를 훔치거나 탈취하였다면 옥감이고, 탁재의 경우는 형량이 가벼워 損福의 대가만을 받게 된다. 이 흑승지옥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새끼줄을 타고 건너가야 한다. 천야만야한 그 밑은 가마솔에서 수천 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용솟음치며 들끓고 있다.

흑승지옥에는 等喚受苦라는 곳이 있다. 그 곳에는 지독하게 불살리면서 끝없이 괴로움을 받는다. 그곳에 나는 業은 남에게 說法을 하면서도 나쁜 所見에 의하여 주장하며, 그것으로 喻하며 一切는 不實하며 自殺도 좋으며 바르고 좋은 계율도 없다는 식의 惡業의 因緣으로 흑승에 떨어져 等喚에 나서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²⁰⁾

이와 같이 한 後 惡業이 흠어지고 난 後 먼 과거의 善業이 있으면 人間으로 還生해도 邊方에 살면서 남의 겁탈을 당하여 財物을 빼앗기고 남의 종이 되어서 不俱者가 되든가 妻子도 없이 苦痛을 받는다.

다음 梅茶地獄을 보면 침상 의약 등을 제 분수에 맞지 않게 쓰며 外道들에게 속아서 염소를 죽이기도 하며 惡業을 지어서 이 苦痛을 받으며 業이 끝나면 餓鬼나 畜生이 되며 혹 人道還生하더라도 쫓추나 장님이 되어 목숨이 짧다고 한다.

여기서 보면 혹승지옥은 대개 財物에 욕심을 내어 사람을 殺害하거나 사람을 결박시키고 음식물을 빼앗는 부류들이 이곳에 나며 그 苦痛은 等活地獄의 十倍나 된다.

본 작품에서는 부모 형제나 善知識에게 교만하면 黑繩獄에 떨어져서 炎熱獄과 極熱獄에서 온갖 고생과 고통을 겪는다고 하였다.

(3) 衆合地獄

牛羊畜生 제성명을 죽여먹기 도하하면

衆合獄의 쉼겨져서 衆泰山이 부더티니

色身骨節 바아논듯 망극고통 무량하고

중합지옥은 팔대지옥중 세 번째의 지옥으로 合地獄・堆壓地獄이라고도 하는데, 살생・투도죄 외에 邪淫을 범한 죄로 특히 음탕한 사람이 오는 지옥이다.

사음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자의 경우는 持戒²¹⁾ 수행승이나 신부를 파계시키고, 유부남을 유혹・간통하는 것이고, 남자는 수절과부나 유부녀・순정녀 등을 강간 간통하는 경우 극상의 죄과를 받는다. 금

20) 大正, p. 30.

21) 계를 가지고 지키는 것. 즉 부처님이 정한 계율을 지키어 범하지 않는 것.

전이나 명예를 詐取할 목적으로 위장 가늌함도 동일하고 부녀자나 처녀들을 囹圄하는 것은 지옥행의 대죄는 안되나 죄과를 면치 못한다.

사슴과 간통을 일삼고 이곳에 온 중생들을 우람한 두 철위산 사이에 넣고 양쪽에서 서서히 조여들어 죄인이 납작하게 되도록 압축시켜 숨을 제대로 못쉬며 또 큰 쇠구유 속에 넣고 눌러 짜는 등으로 목숨이 경각에 이르면 독수리가 날아와 죄인의 눈과 창자를 사정없이 쪼아 먹고 또 閻婆度²²⁾에게 고통을 당한다.

이 지옥의 特徵은 刀葉林이 있으며 나뭇잎이 새파란 칼날같이 뽕뽕뽕하여 이 밑에서 쉬고 있으며, 바람에 떨어지는 칼날 같은 나무잎에 온몸의 근육이 국수발같이 찢어지므로 이 지옥의 이름을 刀葉林地獄이라고도 하고, 모든 고통이 합하여 갖가지로 죄인을 괴롭히기 때문에 衆合地獄이라고 한다.

도엽림의 나무 위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美人을 보고서 愛慾을 느끼고 나무에 오르나 칼날에 빠가 베이어서 골수가 부서진다. 나무에 올라가면 문득 美人은 나무 밑에 내려와서 유혹을 하며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 있고 하여 한량 없는 苦痛을 받는다고 한다.

16小地獄 중 첫째 지옥인 大量受苦處에는 안될 淫行을 행하고 바르게 觀察하지 않으며 사된 욕심을 즐겨 행하면 이곳에 나서 苦痛을 받은 후 餓鬼나 畜生으로 나거나 혹은 人間에 나더라도 셋째 사람이 된다. 이른바 고자 등이 그것이다.²³⁾

이와 같이 衆合地獄은 倫理的인 면에서 性的 禁止로 強制淫行·姦淫하지 말라고 했다. 특히 近親相姦의 경우 문등병이나 미친 병에 걸리거

22) 지옥의 죄인을 괴롭히는 세로써 몸은 크고 코끼리와 같다. 부리가 예리하고 불꽃을 뿜으며 죄인을 잡아 공중으로 날려 떨어뜨린다고 함.

23) 大正, p. 33, 中.

不應行淫 不正觀察 樂邪欲行 生彼大量受苦惱處云云 若於前世過去久遠 有善業熱 不生餓鬼畜生之道 若生人中同業之處爲第三人 謂內官等

나, 난쟁이가 되거나 장님이 되며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

본 작품에서는 소나 양을 잡아 먹기를 좋아하면 衆合獄에 떨어져서 骨節이 부서지는 고통을 끝없이 당한다고 하고 있다.

(4) 叫喚地獄

제계당환 煩惱眷屬 걱정하며 우지르면

呼叫獄의 셔러져서 릉온불노 몸살오니

초통상이 그지업고

규환지옥은 팔대지옥중 네 번째의 지옥으로 呼叫獄이라고도 하는데, 살생·투도와 사음에다 飲酒하는 사람이 오는 지옥이다.

음주는 遮蔽에 속하지만 수행이 목적인 승려들이 음주로 인하여 산란심을 일으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세속인이라 해도 과음이 원인이 되어 타인에게 피해나 불상사를 야기시키는 행위 등은 이 지옥에 떨어지는 범죄가 된다. 또 출가 수행자에게 음주를 권하여 파계시키는 행위도 같은 죄를 받게 된다. 그런고로 승려에게 손가락으로 杏花村 즉 술집만 가리켜 주어도 삼새동안 손가락 없는 과보를 받는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이 술로 해서 스님을 모르거나 계율을 가지는 사람이나 禪定을 즐기는 자에게 고요한 마음을 흐리게 하면 이곳에 떨어져서 붉은 구릿물을 마시는 苦痛을 당하게 된다.

이 지옥 밑바닥에는 기름이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이 있는데 염부제에서 죄인이 오면 그 가마솥에 던져지거나, 맹렬한 불길에 넘실대는 쇠방에 갇혀 뜨거운 고통을 참지 못하여 피끓는 울부짖음으로 절규하면서 고통을 받는다.

규환지옥의 16小地獄 중 첫째 지옥인 大吼地獄에는 在戒하는 사람이나 淸淨한 사람에게 술을 주어 惡業을 만들면 대후지옥에 나며 惡業이

끝나면 혹 善業이 前生에 있으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마음이 우둔하며 어리석고 재산이 없으며 조그만 병을 얻어도 목숨을 마친다고 했다.²⁴⁾

일곱째인 殺殺處는 어떤 사람이 貞淑한 婦人에게 술을 주어 취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한 후 淫行을 하면 그 惡業의 因緣으로 이곳에 떨어져서 苦痛을 받은 후 인간으로 태어나면 法의 結縛을 받고 몸빛이 나빠며 얼굴이 추하고 옥에 갇혀 죽는다.²⁵⁾

이와 같이 물로 인한 戒를 깨뜨리는 것, 淫行을 하는 것, 財物을 얻는 것, 정신을 狂暴하게 하여 殺生을 하는 것으로 因하여 앞의 세 지옥보다 열곱의 苦痛을 받는다.²⁶⁾

본 작품에서는 眷屬들을 꾸짖으면 呼叫獄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에 몸을 살리게 되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였다.

(5) 大叫喚地獄

聖賢君子 가진지물 貪ᄃᆞᆫ거나 盜賊ᄃᆞᆫ면
大叫獄의 쉼러져서 불속의서 우논소리
遠近處의 다들니고

대규환지옥은 규환지옥 밑에 있는 팔대지옥 중 다섯 번째로 大叫地獄 · 大呼喚獄이라고도 한다. 살생 · 투도 · 사음 · 음주 외 妄語罪가 있는 사람이 오는 지옥이다.

망어란 진실하지 않게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망어죄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예컨대 止啼說錢²⁷⁾이나 법화경 火宅喻라든지 여러 사람을

24) 大正, p. 40, 中

25) 大正, p. 42, 中

26) 大正, p. 45, 中

此地獄中皆悉十倍 何以故 以作惡業堅重多故 殺盜邪行 與持戒人酒 四倍惡業

27)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하여 황색 나뭇잎을 황금이라 속이는 행위.

위한 몇 마디 속임말은 妄語罪에 저촉되지 않는다. 단 공공의 이익이 수반됨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짓 증언으로 죄없는 무고한 사람을 有罪로 만들거나, 말뿐만 아니라 허위문서·TV·잡지·신문 등 매개체를 통한 거짓말도 모두 망어죄의 과보를 받는다. 또 권리를 가진 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교묘한 언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현혹시키는 자, 그리고 웃사람을 빙자하여 여러 사람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감언이설로 남을 괴롭히는 죄, 마땅히 拔舌의 죄를 받아야 한다.

거짓말을 즐기는 惡業으로 이곳에 떨어진 사람은 苦痛中에 특히 혀에 대한 고통이 심하다. 불에 달군 시뻘건 집게로 혀가 뽑히는 고통을 받아야 하며, 인간으로 태어나도 貧窮하고 목숨이 짧으며 마음이 어지럽고 자식을 낳지 못하며 미움과 천대를 받는다²⁸⁾

이곳에는 16小地獄이 있는데 그중 受苦無量處에서는 方便으로 거짓을 말한 사람은 지옥고통이 끝난 후 인간에 나더라도 항상 앓는데 목구멍을 앓기도 하며 입병을 앓기도 하여 빈궁하고 困苦하여 항상 보시할 수 있는 富者를 따라다니면서 구걸해도 얻지 못하며 그들은 그를 알고 모두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나쁜 병으로 죽는다 하여 惡業의 果報를 말하고 있다.²⁹⁾

이와 같이 거짓말을 즐겨 이곳에 온 사람들은 혀를 뽑히는 고통을 그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나지 않고 되풀이된다. 이 지옥을 나간다고 해도 아귀도를 거쳐 다시 여우 몸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본 작품에서는 성현 군자의 재물을 탐하거나 도적질하면 大叫獄에 떨어져서 불 속에서 고통받고 운다고 하였다.

28) 大正 32, p. 210.

若生人中同業之處 貧窮短命亂心不男 一切惡賤 人所不信 是 彼殺生 偷盜邪行 飲酒 妄語 餘殘果報

29) 大正, p. 47, 上~中.

(6) 焦熱地獄

愚癡淫慾 즐거히면 烈傷獄의 혀러져서
 쇠니뒸든 諸惡鬼神 몸으로서 불을닉
 다함업시 꺾박히고 鐵가마귀 鐵惡獸들
 덕조으며, 쫓어니야 칼수풀의 고통성이
 원근처의 악악하고

초열지옥은 팔대지옥중 여섯 번째의 지옥으로 일명 炎熱地獄・燒炙地獄・烈傷地獄이라고 하는데 大叫喚地獄의 밑에 있는 지옥이다.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罪에다 邪見이 첨가하여 여섯 가지 罪을 犯한 者が 떨어지는 곳이다.

正見³⁰⁾은 열반에 드는 첩경이요, 邪見이란 지옥행이 되는 것이다. 邪見이란 사된 견해란 뜻으로 因果를 無³¹⁾하는 망견의 허물은 가장 무거운 사건이라 하고, 사건에 떨어지면 인과응보의 이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과보는 받아야 한다. 邪見이라 함은 이른바 世間에는 보지도 없고 과보도 없으며 善도 없고 惡도 없으며 이승도 없고 저승도 없으며, 아버지 없으며 어머니 없다 하여 惡業을 쌓으며 眞實한 業의 果報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다달아 나쁜 形想들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邪見에 의해 죽을 때 두려워하여 똥 오줌을 누기도 하며 그 곳에 떨어져 고통을 받은 후 五百生동안은 餓鬼 속에 나고 다시 五百生동안 고뇌가 많은 畜生 속에 태어나서 다시 거기서 벗어나도 인도 환생하기가 극히 어려우며 혹 태어나도 변방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 항상 앓고 늘 가난하며 장님이 되거나 목숨이 짧으며 그의 딸을 아무도

30) 바른 견해, 또 바르게 自性을 보는 것.

31) 부정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믿지 않는다.³²⁾

이곳에도 16小地獄이 있는데 그 중 첫째 지옥인 大燒處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殺生の 因緣으로 大上에 난다”고 사악한 거짓말을 하여 殺生을 즐기면 이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惡業이 다하면 그 지옥에서 벗어나 三百生은 餓鬼에서 다음 二百生은 畜生 속에 나며 혹 人間으로 나더라도 父母를 존경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모르며 창피와 염치도 없으며 사람의 천대를 받으며 개와 같이 떠돌아 다니면서 음식을 빌어 먹으며 일생을 마친다.³³⁾

본 작품에서는 愚癡淫慾을 즐겨 하면 裂傷獄에 떨어져서 불을 내는 귀신들과 철까마귀 등으로부터 온 몸을 물어 뜯기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였다.

(7) 大焦熱地獄

阿黨是非 망언하면 鐵丸獄의 셔러져서
鐵丸等汁 조조먹여 고통성을 길게하고
경만타인 불순하면 털아옥의 셔러져서
쇠니듯든 모진증생 엄니톱을 거스리고
나누드시 썩여들어 몸의살을 파먹으니

대초열지옥은 팔대지옥 중 일곱 번째의 지옥으로 일명 大熱地獄・大燒炙地獄・鐵丸地獄이라고도 하는 지옥인데 지금까지 여섯 가지 죄에 眞理를 어긴 자가 오는 지옥이다. 진리를 어긴 자란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는 사람과 청정수행하는 尼僧을 더럽히거나 戒律을 깨뜨려서 스님

32) 大正, p. 55 參照.

33) 大正, pp. 55~56, 上.

云何邪見 所謂有人 作如是見 殺生因緣 得生天中如是惡業 云云 彼地獄處 彌及得脫 既得脫已 於三百世 生餓鬼中 云云

의 行에서 타락시켜 그 戒律을 犯하게 하면 몸의 業·입의 업·뜻의 업으로 惡하고 善하지 않은 行을 행하였으므로 이곳에 나서 고통을 받으며, 이런 罪人은 죽으려 할 때에 사흘 前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목숨을 마친다. 또 목숨을 마친 때에는 저승의 모습이 나타나서 두려웁게 한다. 惡業이 끝난 후 지옥을 벗어나면 千生은 餓鬼나 畜生 속에 있으며 서로 잡아 먹으며 이런 畜生은 나쁜 소견으로 다시 깨끗한 行의 비구니의 戒律을 범하여 계속 苦痛을 당하나 혹 因緣이 있어 인간에 나더라도 五百生동안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내가 된다.³⁴⁾

남의 의사에 행동하거나 권력에 아부하여 꼭두각시 놀음에 여념이 없는 자칭 명사·학자·철인·문인·정치가·종교가·의사 등등이 이 속 박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은 후 아귀·축생도를 거쳐 사람으로 태어나도 병어리가 되어 不仁不孝의 비웃음을 사서 마침내 縊殺이나 縊死를 면치 못한다.³⁵⁾

이곳에도 16小地獄이 있는데 그 중 첫째 지옥인 一切方焦熱處에는 어떤 사람이 淸淨한 우바이戒를 犯하면 이곳에 떨어져 苦痛을 받는다고 한다.³⁶⁾

그리고 타타타제를 살펴보면 戒律을 받고 淸淨한 行을 하는 女子에게 淫行을 행하고 또 姊妹나 同生 등과 淫行을 하면 이곳에서 고통을 받은 後 餓鬼 속에서 제 살을 먹고 지내며, 畜生에 나도 암돼지가 되어 제 새끼를 먹는데 이는 親族과 淫行을 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인간이 되어 도 생식기에 병이 있어 스스로 생식기를 베며 아내를 가지더라도 아내가 淫行을 한다.³⁷⁾

34) 大正, p. 62, 上·中 參照.

35) 목을 졸라매어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음.

36) 大正, p. 67, 上.

若人毀犯淸淨優婆夷戒 身壞命終 墮於惡處 在彼地獄 在一切 方焦熱處生

37) 大正, p. 69, 中·下

이 지옥은 比丘尼에 雲雨之樂을 하는 자나 行하여서는 안될 男女不倫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그 과보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머리를 아래로 매달아 뜨거운 구릿물을 항문에 부어 소장을 지지고 태우는 고통으로 불꽃 속에 휩싸인다.

본 작품에서는 是非·妄言하면 鐵丸獄에 떨어져서 鐵丸等汁을 먹게 되고 남을 경멸하거나 남에게 불순하면 鐵餓獄에 떨어져서 쇠이빨 돋은 짐승들에게 물어 뜯긴다고 하였다.

(8) 無間地獄

부모님과 功德人을 誹방하며 背恩하면
 無間獄의 셔러져서 一身皮骨 즌마오미
 간단엄시 고통이오 사랑하며 식염하야
 서로잡기 마자니면 악취중의 셔러져서
 손가락의 칼날듯고 티온불길 치성하니
 제몸도로 살니이며 할관고생 다함업고

무간지옥은 팔대지옥 중 마지막 지옥으로 가장 밑에 있는 지옥으로 阿鼻地獄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옥은 五逆罪(五無間業)³⁸⁾를 범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이다. 앞의 일곱의 地獄과 또 그 판 곳을 모두 하나로 만들어도 무간지옥이 千倍나 더 괴롭다. 五無間業이란 害母·害父·害阿羅漢·破和合僧·出佛身血이다. 이 五業은 不善至極의 業障으로서 반드시 無間玉의 果報를 招感하므로 無間業이라 한다. 父母는 依身을 出生하는 恩田이니 이를 殺害하면 恩田을 저버리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38) <大乘五逆>: ① 塔寺를 파괴하고 經像을 불사르고, 3보의 재물을 훔침.

② 三乘法을 비방하고 聖敎를 경천하게 여김.

③ 스님네를 욕하고 부림. ④ 小乘의 五逆罪를 범함.

⑤ 因果의 도리를 믿지 않고, 惡口·邪淫 등의 10不善業을 짓는 것.

無間業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阿羅漢·和合僧 및 佛은 모두 殊勝한 德을 具足하고, 또한 능히 有情의 勝德을 生하는 所依가 되기 때문에 德田이라고 하는데 이를 殺害하거나 和合을 破하거나 몸에서 죄를 내면 德田을 버리게 되므로 無間地獄에 가야 한다.³⁹⁾

無間이란 고통받는 것이 잠시도 쉬거나 꿈일 사이가 없기 때문이며, 또 즐거움이 전혀 없이 극렬한 고통이 잠시도 쉴 틈이 없고, 옥문은 수 천겹이 지나도 열리는 법이 없어 무간이다. 사바세계서 五逆罪를 지은 자는 생전에 지은 업력의 바람 즉 業風에 불려서 위에서 거꾸로 떨어지니 옥문이 안 열린다.

또 無間에는 五無間이 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이 고통을 느끼는 죄업과 그 결과를 받게 되는 사이가 전혀 거리가 없는 趣果無間, 고통을 경험하는 데 간격이 없는 受苦無間, 지옥의 넓이는 팔만유순으로 몸의 형체도 같은 넓이로 불어나 조금치의 공간이 없는 形無間이 있다.

세상에서 五無間을 짓고 이곳에 떨어지면 一日一夜 萬生萬死하면서 百千萬劫이 다하도록 갖은 고통을 다 받아야 한다, 무간지옥에는 구리로 된 개가 있는데 몸길이는 40유순, 눈은 번개, 이빨은 칼날, 혀는 철침으로 죄인을 단숨에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지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적귀의 16명의 줄개가 있는데 그들의 머리는 羅刹의 머리, 입은 夜叉, 입과 눈은 64개나 되고, 치켜 든 칼날의 길이는 4유순, 이빨에서 내뿜는 불꽃은 지옥에 가득 차 있다. 옥줄의 머리에는 牛頭馬頭に 18개의 뿔이 있고, 뿔 하나 하나에서 맹렬한 불꽃을 토해 내면서 죄인을 감시하고 있다. 이 지옥 안에는 4개의 문이 있고 그 안에는 18개의 가마솔이 있고, 그 솔에는 구리첫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거꾸로 매달려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저기 부딪혀 튕겨 오는 화염 속에서 신음하는 망령들의 울부짖는 비명소리, 뿔 달린 쇠뱀이 독을

39) 梶川乾堂 著, 全明星 譯, 俱舍論大綱, 불광출판사, 불기 2516, p.110.

내뽀는 소리가 항상 들린다.

이곳에도 16小地獄이 있는데, 이곳에서 惡業이 다하면 餓鬼 속에서는 二百千生동안 주림과 목마름에 타고 畜生들 속에서는 二千生을 지낸다 하여 나는 곳마다 온갖 고통이 있으며 畜生으로 나서는 갖가지 나쁜 먹이를 먹으면서 마음으로 항상 기억하고 다시 살생하는 곳에 나서는 서로 잡아 먹으면서 큰 고통을 받는다. 혹 인간으로 나더라도 오백생동안은 태안에서 죽고 다시 오백생동안은 나자 이내 죽어 까마귀에게 먹히며 다시 오백생동안은 걷기 전에 죽는데 그것은 다 남은 業의 果報라 한다.⁴⁰⁾

이와 같이 無間地獄은 人間으로 절대로 行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을 때 가는 곳이라 하겠다.

본 작품에서는 부모님과 공덕인을 배은하면 無間獄에 떨어져서 間斷 없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地獄에 관한 언급이 있다.

愚癡淫慾	즐거흐면	裂傷獄의	셔러져서
아당시비	망언흐면	鐵丸獄의	셔러져서
輕慢他人	불순흐면	鐵餓獄의	셔러져서
非梵行을	스랑흐면	陽動獄의	셔러져서
남의게도	권호죄로	鐵輪獄의	왕리호며
正梵道를	그릇호면	갈날獄의	셔러져서
손톱으로	殺生호면	遊增獄의	셔러져서
智慧君子	살피시고	地獄罪報	면호시소

40) 於餓鬼中 二百千世 飢渴燒者 於畜生中 經二千世 惡不善業天餘殘勢力 種種惡食 心常憶念 殺生處生 復於彼處 迭相食噉 受大苦惱 苦脫彼處 過去業力 得生人中 於五百世 中而死 復五百世生已而死 爲鳥所食 復五百世末行而死 是彼惡業餘殘果報

2. 餓鬼道頌

餓鬼道頌 들어보소 제財物도 앓겨쓰고
 남의布施 막조르며 飮食盜賊 호야먹고
 餓達獄의 셔러져서 기하고로 餓鬼되고
 제財物도 아니쓰며 남도쓰디 말나호고
 餓鬼中에 셔러져서 주리움을 못니고여
 코충膿血 맛만보고 설운고초 난감이요

아귀계란 아귀가 사는 세계라는 뜻으로, 남염부주 밑 오백유순, 길이와 넓이가 삼만 육천유순에 있는 閻魔王⁴¹⁾의 궁전 주위에 있다.

아귀도는 기갈에 시달리는 욕구의 세계다. 아귀의 鬼는 죽은 자의 혼, 즉 악업의 과보로 餓鬼道에 태어난 망자란 뜻이며, 살아 생전에 기갈을 느끼는 행업을 많이 하여 음식은 물론 물을 먹기는 고사하고 물을 보거나 물이란 이름조차 듣지 못한다. 또 배는 인왕산만큼 부른데 목구멍은 마치 바늘구멍보다 더 작아 눈 앞에 태산같이 먹을 것이 쌓여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곳이다.

이곳에 오는 첫째 이유는 貪慾이다. 탐욕이란 善心根을 해치는 三毒(貪慾·瞋恚·愚癡)의 하나로 생전에 물건이 아까워서 잔뜩 욕심을 부린 사람이 이곳에 떨어진다. 즉 十惡業⁴²⁾이라 하여 몸·입·뜻으로 짓는 십악을 말한다.

또 五事로 아귀도에 태어나는 것으로 남에게 조금의 布施도 베풀지 않았고, 부모에게 不孝, 慈悲心이 없고, 재물로 濁業을 지은 자, 공덕은

41) 일명, 염라왕, 세계의 지배자 즉 죽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관.

아귀계의 주인이기도 하다. 혹 지장보살의 화신이라고도 한다.

42) 十惡業道: 殺生·偷盜·邪淫·忘語·兩舌·惡口·綺語·貪慾·瞋恚·邪見.

쌓지 않고 귀천에 관계없이 아무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일가친척이나 친구에게 의지하며 걸식하거나 국가 사회에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곳에 떨어진다.

아귀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지하 오백유순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은 과보에 따라 다른데 그 중 뛰어난 것은 제천 인계에 가깝고, 못한 곳은 지옥과 흡사한 곳에 살며 염마왕궁을 수도로 삼고 있다. 신통아귀는 신통력이 있어 천계에도 살 수 있다.

餓鬼의 種類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절이나 사당, 명절시에 차려 놓은 음식의 향기로 먹이로 삼는 食氣아귀, 보시에 관한 설법을 듣는 공덕으로 연명하는 食法아귀, 미묘의 남녀로 변하여 아귀도에서는 남녀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色慾아귀 등이 있다.

그리고 人界에도 밤이나 낮에도 볼 수 있는 人中鬼와 餓鬼界鬼가 있다.

아귀는 통틀어 36鍾이나 대략 3류 9종으로 나눈다. 3류란 無財아귀 · 小財아귀 · 多財(有財)아귀를 말하고, 9종에는 炬口鬼 · 針口鬼 · 臭口鬼 · 鍼毛鬼 · 臭毛鬼 · 嬰鬼 · 希詞鬼 · 希棄鬼(羅刹) · 猛炎鬼 등이 있다.

餓鬼의 壽命은 인간의 50년을 하루 밤 하루 낮으로 치고 아주 긴 것은 84,000살이고, 짧은 경우는 일정치 않다. 대략 1000살이 정명이다. 아귀는 지옥보다는 낮고 여기서 정명이 다되면 한 단계 위의 축생계로 올라가게 된다.

본 작업에서는 제 재물도 아껴 쓰고 남은 布施 막 자르며 음식을 도적하면 餓達獄에 떨어져서 餓鬼가 되어 주름을 못이기는 고통을 받게 된다 하였다.

이 밖에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다.

怒色얼굴 嗔心호면 乾達鬼中 쉼러지고

嗔心망어 마다니면 必陷鬼中 셔러져서
 祿라는일 어긋오면 약차귀중 셔러져서
 毒行實 더욱호야 곱픈苦楚 난당이라
 苦와樂을 제짓느니 智慧丈夫 슬피시오

3. 畜生道頌

傍生道頌 들어보소 에혹심과 淫慾心을
 只옴티로 行호오면 牛馬나귀 원숭이며
 비들기와 게우오리 가디가디 禽獸되야
 色慾호기 즐겨호고 진심분심 我慢心을
 참음업시 行호오면 豺狼猛虎 표범이며
 毒호비암 모딘벌이 갓초갓초 되어나서
 서로잡아 먹히이며 殺生業이 無量호고

축생이란 인간이 사는 娑婆世界의 六合(東西南北·上·下)에 인간과 공존하는 禽獸魚蟲의 네 종류를 말하며 그들의 행동이나 형태는 다양각색이다. 다시 말하면 四生이 있는데 땅 위를 거처로 삼고 豎行하거나 匍行하는 胎生(짐승류), 공중을 집으로 삼고 날아다니는 卵生(새종류), 물을 궁전으로 알고 遊泳하는 濕生(어류), 공중을 날거나 시궁창이나 땅 속에 집을 짓고 사는 化生(곤충류)을 통틀어 축생이라 한다.

축생은 우둔해서 자립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길러지는 소·말·개·새·물고기류가 많다. 그 形態로 無足·二足·四足·多足에서 有毛無毛 등 다양각색이다. 畜生을 다른 말로 하면 傍生이라 함도 형태와 마음이 의롭지 못하여 똑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축생보를 받으면 성품이 우둔하여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오욕 중 본능욕인 식색, 즉 食慾과 色慾뿐이다. 또 貪心과 無恥 때문에 부모 형제

도 분별 못하여 서로 죽이고 해치기가 일쑤다. 그래서 고통은 많고 즐거운 낙이란 아주 적은 편이 축생계이다.

어떻게 하여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은 前世의 宿因의 업보인데 그 果體에는 46억종의 차별이 있다. 10종의 業因만 들면 三業(身・口・意)과 三毒(貪・瞋・癡)와 남을 꾸짖고 욕하고 해치고 사음하고 不正을 베푸는 등의 그릇됨을 행한 사람이 축생으로 태어나게 된다. 축생의 주처는 水・陸・空 세 곳이지만 본처는 대해의 가운데이다.

축생의 종류는 매우 많다. 魚類 6,400, 鳥類 4,500, 畜生 2,400, 그리고 벌레에서 일체 有情까지를 다 합하면 약 40억종이나 된다. 큰 것은 龍王金翅鳥로 각각 縱橫六천유순이나 되지만, 제일 작은 것은 모기수염에 사는 세루메와 물 속에 사는 벌레 등이 있다.

축생류의 壽命은 일정하지 않다. 長壽하는 龍王도 一劫을 넘지 못하고 短命인 하루살이는 단 하루도 채우지 못한다. 비둘기에는 三枝之體가 있고, 까마귀는 反哺之孝가 있고, 벌은 천리를 날아서 꿀을 따다 주인을 돕고, 개미의 부지런함과, 개의 충절 등은 인간이 본받아야 한다.

인간과 축생과의 다른 점은 형상의 다른 '점'이야 천양지판이지만 개의 후각 즉 냄새 맡는 능력은 인간의 일백배 정도가 되나 예절을 모르며 다른 축생도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예의 진취적인 정진이 없는 것이 인간과 다르다.

본 작품에서는 傍生道頌으로 나오는데, 淫慾心을 마음대로 행하면 금수가 되어 서로 잡아 먹고 먹히게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 밖에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다.

탐심진심 癡心業을 조심업시 더어실시
鳥鵲술이 부형이며 웅비여호 너구리며
魚龍水族 광야곤충 남음업시 放生類라

惡行惡心 더옥호야 閻魔界에 셔러져서
無限苦楚 長遠호니 어느時에 人身될고

4. 人 道 頌

人趣道頌 들어보소 人與獸과 차별중에
天上樂을 벅랄딘터 八關齋戒 지녀시면
快樂壽命 長遠하여 疾病憂患 아조업고
忠孝信心 지극호면 富貴端正 거룩호고
갓초갓초 善行호면 즐거운몸 되야나서
去來人을 쉬게호면 묘화길상 장엄호고
약딩글어 남구호면 후시무병 장수호고

人道는 五道の 하나이며 六道の 하나이기도 한 人間界를 말한다. 과거의 五戒나 中品十善의 因을 닦은 이가 나는 갈래(趣)이다. 인간이 四生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남은 三生之因緣이 있어야 하니 극히 어려운 것이다. 2천년인지 3천년인지 활활 타오르는 불꽃만의 세계로 고통뿐인 지옥도, 물과 그늘이 없는 삭막하기 그지 없는 허허로운 사막의 아귀도, 자유와 안락이 없는 축생도, 밤낮 싸움질뿐인 수라도를 돌고돌아 人道還生하였으니 解脫⁴³⁾하여 영구안락의 몸이 될려면 轉迷開悟⁴⁴⁾하는 길외는 없다. 인간들은 오직 不惜身命⁴⁵⁾하면 生死苦海를 건널 수 있는 법이다.

人道에 왔으니 天界로 가면 六凡 즉 범부중생이 사는 미혹과 고뇌의 세계를 지나 四聖의 경지인 聲聞·緣覺·菩薩·佛의 고통이 절대 없는

43)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에서 풀리는 것, 깨달음과 열반.

44) 번뇌망상을 버리고 깨달음의 마음을 발원하는 것.

45) 구도자가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세계로 가야 하는 것이다. 만약 貪·瞋·癡와 愛慾에 빠지면 영원토록 六道輪廻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 즉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四聖位중에 不還果⁴⁶⁾를 증득해야 한다.

무한대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현상은 成往壞空의 사대원리에 입각해서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데, 인간들도 그 이치를 모르는 까닭으로 常樂我淨에 빠져 있다. 즉 덧없는 무상한 常을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고, 즐거움이 아닌 고통을 樂으로, 地水火風 四大가 합한 거짓 나를 영원불변한 절대 참된 我라 생각하고, 부정한 것을 망상이 일지 않는 정이라 생각하는 범부의 四顛倒로 생사고해를 윤회하는 것이다. 轉凡入聖하는 길은 전도몽상을 타파하고 열반의 果德⁴⁷⁾을 성취하면 世世生生流轉生死가 없는 法位⁴⁸⁾에 올라 無爲大樂을 즐길 수 있는 眞我를 보며 黑業의 때를 씻어 湛然常寂⁴⁹⁾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五戒八根 十善天種이다. 다시 말하면 오계를 수행하면 인간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십선⁵⁰⁾을 닦으면 천상계에 태어나게 된다. 五戒중한 가지만 범하여도 지옥계로 떨어지게 되니 인간이란 十界⁵¹⁾를 두루 통하는 십자로에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다.

《佛說譬喻經》의 岸樹井膝에서는 우리 인생을 끝없는 황량한 벌판의 한 나그네에 비유하였다. 즉 이 비유에서 나그네는 우리 인생, 벌판은 無明長驅, 꼬끼리는 無常, 우물은 이 세상, 넝쿨은 생명(인명), 흰쥐와 검은 쥐는 晝夜, 네 마리 독사는 四大, 다섯 방울의 꿀은 五欲, 벌은 妄想, 들불은 老病, 독용은 죽음에 각각 비유하였다.

46) 퇴보하지 않는 아라한 위, 이미 육계의 번뇌를 다 끊고 天에 태어나 欲界에 되돌아 오지 않는 位.

47) 수행의 결과로 갖추어진 공덕열반에 無樂我淨의 四德이 있는 것.

48) 만유 제법의 安住하는 位·진여.

49) 생멸을 절하고 번뇌를 끊은 깨달음의 경지에 조용히 안정하는 것.

50) 十善.

51)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천·성문·연각·보살·불의 열 가지 경계

우리 인생은 누구나 壽命長壽로 富貴功名을 누리고자 하나 八苦를 벗어날 수 없다. 生·老·病·死의 前四苦와 愛別離苦·怨憎會苦·求不得苦·五陰盛苦의 後四苦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인간계의 참모습과 五塵六慾⁵²⁾을 알았다면 일편단심 선심을 굳혀 佛法으로 超生了死해야 하겠다.

본 작품에서는 忠孝·信心 지극하고 선행을 쌓으면 즐거운 몸이 되어 난다고 하였다.

이 밖에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다.

인등황촉	시주하면	眼目淸淨	상덕갓고
風流야	남들니면	음성미묘	청아하고
貧病他人	구제하면	만승복덕	구족하고
平等行實	즈비하면	諸天人이	공경하고
飲酒妄語	참아시면	吉祥明德	진동하고
種種飲食	배퍼시면	후사권속	화목하고
善事議論	즐거야	安樂國의	장엄하고

5. 天 道 頌

天道頌을	들어보소	天上福樂	넉넉단터
世間名利	친척권속	활활이	썰썰리고
中品下品	持戒하면	四王天의	락을맞고
戒法律을	닥가시면	忉利天의	락을맞고
계법률을	범차니면	夜摩天의	락을맞고
德行々하	진실하면	觀史天의	락을맞고

52) 色·聲·香·味·觸의 五가지 대상과 眼·耳·鼻·舌·身·意의 六가지 감각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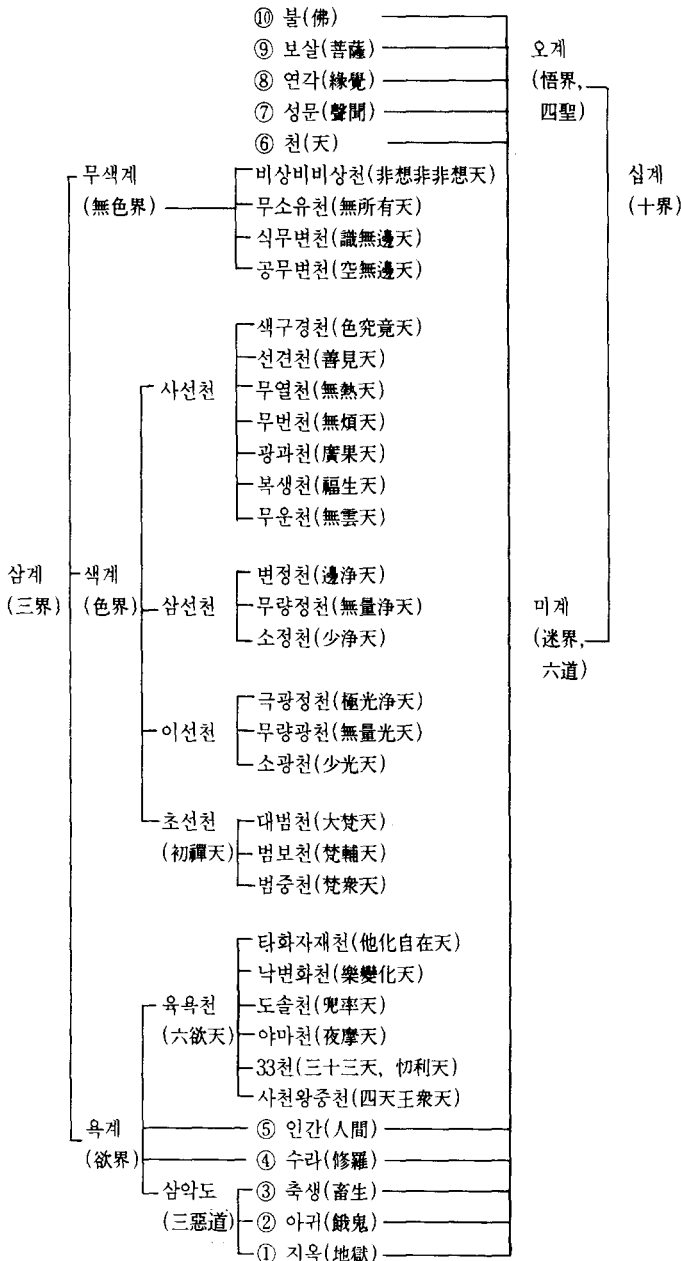
正法으로 남권하면 變化天의 락을받고
 불전인등 持戒敬天 日月天의 락을받고
 四時八節 주야업시 光明天이 되오시니

天道에 태어나려면 사바에서 禪定+善을 닦거나 줄여서 五事を 生天의 원인으로 삼는다. 또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지키는 것도 생천의 원인이 된다. 天界에도 여러 가지 業因에 의한 우열이 있어서 果地에 만 가지 차별이 있다. 짧으면 5백년, 길면 유정천의 8만대집을 살 수 있다.

불교의 우주관에 따르면 이 세계는 크게 ‘깨달음의 세계(悟界)’와 ‘헤매임의 세계(迷界)’로 나누며, 이것을 다시 나누어 十界로 체계화하고 있다. 십계란 地獄·餓鬼·畜生·阿修羅·人·天·聲聞·緣覺·菩薩·佛 등이다. 이 가운데서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천 등의 여섯 세계는 미혹한 凡夫가 스스로 지은 業에 따라 생사를 거듭하며 끝없이 윤회하는 ‘헤매임의 세계(六道 또는 六趣, 六凡)’라 한다. 한편 聲聞·緣覺·菩薩·佛 등의 세계는 수행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聖者의 세계인 까닭에 ‘깨달음의 세계(悟界 또는 四聖)’라 일컫는다. 이렇게 ‘헤매임의 세계’인 욕도와 ‘깨달음의 세계’인 사성을 합하여 ‘六凡四聖’이라 일컫기도 하는데 불교의 우주관을 함축한 표현이다. ‘헤매임의 세계’인 욕도 가운데서도 특히 地獄·餓鬼·畜生을 일컬어 三惡道·三惡趣라 하는데 이는 악업을 지은 대가로 태어나는 매우 고통스런 세계이다. 인간 세계나 天의 세계는 선업을 쌓아 태어나는 세계로 福樂은 누리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여 아직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이다.⁵³⁾

53) 이기선, 앞의 책, pp. 20~28.

〈표 1〉 십계의 구성



天界에도 욕계·색계·무색계의 삼계가 있으므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1) 欲 界

欲界는 최하로 사왕천이 있지만 위로는 忉利天·夜摩天·兜率天·化樂天·他化自在天 등 六欲天이 있다. 도리천은 수미산 정상에 제석천왕의 궁전인 善見城이 있다. 사방에 각 8개성이 있어 선견성과 합하면 三十三天이 된다. 야마천을 일명 善時天·時分天이라 한 것은 쾌락을 받기 때문이다. 도솔천은 和足天·喜足天이라 한 것은 질과 양에 관계없이 天分에 족함을 알고 기쁜 마음을 내므로 이와 같은 이름이 있다. 過去七佛도 이곳에서 수행하였고, 미래불이 될 彌勒菩薩도 현재 이곳에서 수행설법 교화하고 계신다. 화락천은 구체적으로 他化自樂天이고 塵慾을 정화하여 지극한 즐거움을 삼는다. 마지막으로 타화자재천은 자신의 오진욕욕만 정화하여 至樂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진도 마음대로 정화시켜 함께 낙을 즐기는 욕욕천 중에 최고위인 것이다.

六天의 住處壽命行慾은, 최하에 있는 사왕천이 金輪⁵⁴⁾으로부터 4만유순 거리에 있고, 차츰 배로 증가하여 타화자재천은 128유순의 거리에 있고, 사왕천의 수명은 인간의 50년을 1주야로 하여 5백년이 정명이고, 도리천은 100년을 1주야로 하여 그 정명이 1000년으로 점점 배로 늘어 타화자재천은 1만 6천세가 된다. 주식은 구름을 마시고 노을을 먹는다. 雲霧는 무진장하기 때문에 궁색한 생활은 없다. 사왕천·도리천은 地居二界의 행욕인 交合에는 인간과 별다름이 없으나, 야마천에는 살짝 껴안는 것으로 행음이 이루어지고, 도솔천은 손을 잡는 것으로 충족하고, 화락천은 서로 마주 보고 웃는 것으로 족하고, 타화자재천에는 서로 쳐다보는 것만으로 다 이루어진다.

54) 大地最下에 風輪·水輪·金輪과 最上에 虛空輪을 합하여 四輪이라 한다. 두께 3억 2만유순, 직경 12억 3천 4백 5십유순, 이것이 산과 강 즉 九山八海를 떠받들고 있다는 불교의 세계관이다.

(2) 色 界

다음 色界⁵⁵⁾를 보면, 色이란 물질 즉 현상의 일체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색이라 한다. 색을 분류하면 靑赤黃白같은 색체를 말하는 顯色, 方丹長短은 모양을 말하는 形色, 行住座臥 등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색이 있다. 色이 있기는 하지만 욕심이 없는 극락의 경지를 말한다.

色界의 天人은 욕심이 다 없어졌으니 남녀의 구별도 없고 옷은 자연 그대로이고 광명으로 먹이를 삼고, 또한 언어로 삼는 것이다.

색계에는 四禪天 또는 四靜慮라고 하는 初禪·二禪·三禪·四禪이 있다. 초선천은 離生喜樂地라고 욕계의 藥을 떠나는 데서 얻는 즐거운 경지다. 이 경지에는 梵衆天·梵輔天·大梵天의 三天이 있는데 覺·觀·喜·樂·一心의 五支를 수행하면 이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선천은 定生喜樂地라 하여 걱정을 즐겨 희락을 얻는 곳이다. 이선천 이상은 五識⁵⁵⁾이 없기 때문에 凡地 즉 범부의 지위와 같은 즐거움이 없다. 이선천에는 少光天·無量光天·極光淨天 등 三天으로 나눈다. 이선천은 內情·喜·樂·一心의 四支를 수행함이다. 삼선천은 離喜妙樂地라 한다. 기쁨과 즐거움마저 떠났다는 오락의 경지다. 삼선천에는 小淨天·無量淨天·邊淨天 등 三天이 있다. 여기는 捨·念·慧·樂·一心의 수행 결과다.

사선천을 모두 四念淸淨地라 한다. 생각마저 버리고 정심에 들고 四靜慮를 기뻐하는 희심까지 단절하여 樂受까지도 깨닫지 못한 심평등의 경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不苦不樂·捨·念·一心의 四支를 수행한 결과다. 여기에는 無雲天·福生天·廣果天·無想天·無天·無熱天·善現天·善見天·色究竟天 등 아홉 개의 天이 있다. 무변천 이상 다섯 천을 五淨居天이라 하여 離慾聖者만 있는 곳이다.

제천의 수와 넓이는 初禪은 小千世界·二禪은 中千世界·三禪은 大千

55) 色·聲·香·味·觸의 五境을 인식하는 眼識·耳識·鼻識·舌識·身識.

世界・四禪은 광활무변하다. 그 身量은 범중천은 반유순 점차 배증하여 색구경천은 1만 6천유순이나 된다. 이 天界에는 밤낮의 구별이 없고 수명의 장단은 겁수에 의한다. 劫數의 장단은 身量과 같아 색구경천의 수는 일만육천겁이나 된다. 그러나 永生不死는 아니다. 天人에게도 죽음은 있다. 三禪天 이하는 水火風의 재앙이 미친다. 사선천만이 이 三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초선은 觀心動, 이선은 喜心動, 삼선은 衆心動인데, 사선만이 不動이다.

끝으로 三界의 최고층인 無色界란 색법을 떠난 受・想・行・識의 四蘊만이 있는 곳이다. 색 즉 물질은 없어도 여러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人空法有 하나 有無二邊에 묶여 解脫하지 못하여 人法二空 皆空妙有⁵⁶⁾라야 지극한 경지다.

(3) 無色界

무색계에는 空無邊天・識無邊天・無所有天・非想非非想天 등 四天이 있다.

공무변천은 虛空知天・空處天이라고도 한다. 이 경계의 수행은 식질을 여의는 허공의 相을 관하여 무변의 空想⁵⁷⁾을 觀察照了하면 一切皆空하는 것이다.

식무변천은 識知天・識處天이라고도 한다. 공의 무변함이 싫어 마음을 변전하여 識緣의 정에 들어가 청정한 눈을 열어 識相의 무변함을 관조할 수 있으면 일체제법이 모두가 식이요, 萬法唯識心外無別法을 체득할 수 있다면 명리도 생사도 소멸되어 버린다.

무소유천은 不用處天이라고도 한다. 공의 무변이라 하여도 식의 무변이라 하여도 결국 삼세는 유통하여 끝이 없는 流轉無安⁵⁸⁾이 있을 뿐이다. 탐심은 이미 멀하고 識心까지 멀하여 十方寂照하여 구할 것도 닦

56) 人空法空, 즉 有 無를 超越한 절대적 경지.

57)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특징.

58) 業에 의해 三界六道를 표류하며 生死輪廻하기 때문에 편안함이 없음.

을 것도 없고 나라는 집착이 없는 相으로서 여러 가지 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이 곳의 경지다.

비상비비상천은 모든 존재의 영역에서 최고의 결정에 있는 하늘 곧 三界九地の 최정상이므로 有頂天이라고 부른다. 욕구의 망념을 통틀어 없애므로 非想이라 하고, 그래도 잠재적 상념인 細想을 非非相이라 한다. 또 識性不動하여 窮研을 멸하였다고 해도 無盡性이 있고, 있으면서도 있지 않고 다한 것 같으면서도 다하지 않은 것을 非相非非想處라 한다.

無色界天의 수명을 보면 공무변천은 2만겁, 식무변천은 4만겁, 무소유천은 6만겁, 비상비비상천은 8만대겁이 정명이다. 천수가 다 되어 가면 五衰⁵⁹⁾가 나타나는데 대별하면 大衰·小衰의 두 가지가 있고 색·무색계에는 退沒하는 괴로움이 있다.

天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만 聲聞乘이라는 初位 즉 깨달음의 경지가 있고 다음 緣覺·菩薩·佛位로 올라가야만 진리의 완성자가 되어 생사의 고통을 초월한 영원한 지락의 경지에 머물게 된다.

본 작품에서는 天上福樂을 바라면 世間名利나 친척권속을 잊어버리고 戒法律을 닦으면 六欲天의 欲界를 떠나 色界天의 人法二空 皆空妙有하여 지극한 경지에 갈 수 있고 또한 無色界에서 八萬大劫의 長壽로 至樂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다음과 같은 대목들도 있다.

邪淫重罪	들어보소	三惡道の	들었다가
人道還生	어든몸이	가문당이	부정하고
거즌말죄	들어보소	삼악도의	들었다가
남들고디	아니듯고	입으로	악취나고
浪說罪報	들어보소	三惡趣의	들었다가

59) ① 衣服非愛 ② 光明味劣 ③ 水適着身 ④ 一境滯着 ⑤ 眼睛瞬動

무음쓰미 불안하고 근심된일 셔나단코

즐겁다 님을손가 三界度世 님〇샤터

人間世에 오십년이 天堂의 一晝夜라

天堂一年 열두달이 人間一萬 八千世오

天上十年 디나갈제 人間一億 八世이니

수천년수 텨상락을 인세수로 도개하면

IV. 結 論

본고는 智瑩의 불교가사 작품인 〈冥說因果曲〉을 작품에 나타난 五道頌의 樣相을 중심으로 考察하여 보았다.

먼저 地獄의 모습을 알기 위하여 地獄의 語義・位置・構造・種類 등을 概觀하고 나서 작품에 나타난 五道頌의 樣相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다룬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地獄道頌에서는 殺生하면 等活地獄에 가고, 偷盜罪가 추가되면 黑繩地獄에 가고, 邪淫罪가 추가되면 衆合地獄에 가고, 飲酒罪가 추가되면 叫喚地獄에 가고, 妄語罪가 추가되면 大叫喚地獄에 가고, 邪見罪가 첨가되면 焦熱地獄에 가고, 앞의 6種의 罪에 眞理를 어긴 자는 大焦熱地獄에 가고, 五逆罪를 범하면 無間地獄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2) 餓鬼道頌에서는 善心을 해치는 三毒(貪・瞋・癡)과 十惡業을 행하면 食氣餓鬼・食法餓鬼・色慾餓鬼 외에 36種의 餓鬼가 있는 餓鬼道에 온다고 했다.

3) 畜生道頌은 食慾과 色慾만의 본능세계로 前世의 宿因의 業報인데 三業과 三毒 그리고 남을 꾸짖고 不正의 10種의 業因으로 胎生類・卵生類・濕生類・化生類 등 40億種이 되는 畜生道에 온다고 했다.

4) 人道頌에서는 五戒나 十善의 因을 닦은 이는 人道에 태어 난다고

했다. 人間은 貪·瞋·癡와 五欲에 빠지면 六道輪廻의 길을 벗어날 수 없고, 轉迷開悟하여 四聖位중에 不還果를 증득하면 生死輪廻를 벗어나 超生了死할 수 있다고 했다.

5) 天道頌에서는 娑婆에서 禪定十善을 닦거나 五事を 生天의 원인으로 삼는다면 天道에 태어난다고 했다. 天界에도 慾界·色界·無色界의三界가 있다. 欲界에는 四王天·忉利天·夜摩天·兜率天·化衆天·他化自在天 등 六欲天이 있고, 色界에는 四禪天인 初禪·二禪·三禪·四禪이 있다. 初禪에는 梵衆天·梵輔天·大梵天이 있고, 二禪에는 少光天·無量光天·極光淨天이 있고, 三禪에는 少淨天·無量淨天·遍淨天이 있고, 四禪에는 無雲天·福生天·廣果天·無想天·無煩天·無熱天·善現天·善見天·色究竟天 등이 있다.

無色界에는 空無邊天·識無邊天·無所有天·非想非非想天 등 四天이 있다. 비상비비상천의 수명은 8만대겁이나 된다.

결국 〈冥說因果曲〉은 六道輪廻 중에서 阿修羅만 빼고 나머지 五道の 양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參考 文獻

《金剛般若波羅密經》

《法句經》

《淨土三部經》

《涅槃經》

《楞嚴經》

《大智度論》

《地藏經》

《長阿含經》

《俱舍論》

《雜阿含經》

參考 論著

具壽榮, 〈懶翁和尚과 西往歌 研究〉, 《國語國文學》第62·63合併號, 1973.

金起東, 〈國文學의 佛教思想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76.

金聖培, 〈韓國佛教歌謠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76.

- 金雲學,《韓國佛教文學 研究》,玄岩新書,1970.
- 金鐘雨,〈懶翁和尚의 僧元歌〉,釜山大《國語國文學》第10輯,1971.
- 金周坤,〈回心曲 研究〉,大邱韓醫科大學 論文集 第4輯,1986.
- 盧玄錫,〈佛教의 地獄 考察〉,東國大 大學院 碩士論文,1985.
- 柳玆善,〈歌辭에 나타난 思想的 影響에 대하여〉,全南大 論文集 第14輯,1968.
- 류정훈 편저,《業》,보림사,1987.
- 梶川乾堂 著,全明星 譯,《俱舍論大綱》불광출판사,불기 2516.
- 朴相文,〈國文學的으로 본 佛教思想研究〉,美國加州國際大學博士論文,1982.
- 朴晟義,《韓國文學背景研究》(上)·(下),二友出版社,1980.
- 宋啓賢,《韓國佛教思想史研究》,東國大出版部,1983.
- 元義範,〈極樂과 天國의 來世觀的 比較〉,《佛教學報》第6輯,1969.
- 이기선,《지옥도》,대원사,1992.
- 李箕永,《佛典解說》,韓國佛教研究院,1978.
- 李相寶,〈佛教歌辭의 研究〉(上),東國大 國語國文學 論文集 7·8輯,1969.
- ,〈佛教歌辭의 研究〉(下),明知大論文集 第3輯,1970.
- 李相寶,《韓國佛教歌辭全集》,集文堂,1980.
- 李英茂,《韓國의 佛教思想》,民族文化社,1987.
- 林憲道,〈圓寂歌 小攷〉,公州師大 論文集 第5輯,1967.
- 崔康賢,〈佛教文學으로서의 歌辭〉,《금강》第6輯,1985.
- 韓基斗,《韓國佛教思想研究》,一志社,1980.
- 洪起三,〈韓國佛教文學論〉,《佛教와 諸科學》,東國大出版部,1987.